

6월 모평
분석자료집

이

의

이

20

감

사

트

21



CONTENTS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Review

I. 주요 데이터	02
II. 영역별 특징과 경향	05
III. 총평 및 수험생을 위한 조언	19
IV. 연계 양상	20
V. 이감 장학생들의 생생후기	26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Review

I

주요 데이터 - 등급컷 / 오답률 Top10 / 정보량

등급컷

[2020학년도 등급컷 / 2021학년도 예상 등급컷 비교]

등급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0학년도 수능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예상 등급컷		
	평가원	평가원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EBSi
1	87	91	91	91	91
2	80	85	83	83	83
3	72	77	75	75	75
4	62	67	65	65	65
5	50	55	52	52	52
6	37	43	37	36	37
7	26	32	25	25	26
8	20	23	19	20	20

- 01 '2020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의 등급컷이 예상된다. '2020학년도 수능'에 비하여 이번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가 더 쉽게 출제되었다는 입시 기관들의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결코 낮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02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보다 등급컷이 비교적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치루어진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낮은 만큼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 03 객관적인 시험의 난이도에 비해 등급컷이 다소 낮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생각보다' 등급이 잘 나온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실제 수능에서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본인의 등급에 안주하지 말고, 객관적인 현재 실력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수능까지 치밀한 학습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오답률 TOP10]

(단위: %)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택지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28번	독서	3	67.5	②	10.0	32.5	32.4	14.2	10.3
2위	45번	문학	2	63.7	④	7.3	29.0	22.3	36.3	4.5
3위	32번	독서	2	61.7	③	11.6	15.2	38.3	22.0	12.2
4위	25번	독서	2	60.2	①	39.8	23.1	13.5	14.3	8.9
5위	15번	언어(문법)	2	59.5	⑤	27.7	7.6	7.2	16.6	40.5
6위	14번	언어(문법)	3	57.3	①	42.7	23.2	12.7	13.1	7.8
7위	42번	문학	3	57.1	②	9.4	42.9	16.6	19.1	11.3
8위	23번	문학	2	54.1	④	30.1	8.0	6.3	45.9	9.2
9위	31번	독서	3	50.7	④	6.7	11.3	21.7	49.3	10.3
10위	26번	독서	2	49.9	②	5.3	50.1	9.0	13.3	21.7

독서	5	언어(문법)	2	문학	3
----	---	--------	---	----	---

- 01 오답률 TOP10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독서 5문항, 언어(문법) 2문항, 문학 3문항이 포함돼 있다. 오답률 TOP10에 문학 문항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던 작년 수능과 차이가 있다.
- 02 독서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웠던 주제 통합형 인문 지문을 제외한, 기술 지문에서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이 오답률 1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사회 지문의 경우 오답률 TOP10에 31, 32번 2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수록하였다(9쪽). 28번 문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항 해설을 수록하였다.
- 03 언어(문법) 영역에서는 2문항 정도가 꾸준히 오답률 TOP10 안에 들고 있다. 내년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변화하겠으나, 올해 수능까지는 이렇게 언어(문법) 영역에서 한두 문항이 결정적인 변별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수험생들은 언어(문법)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 대비 전략이 필요하다.
- 04 문학 영역에서는 고전소설과 시나리오 복합 세트에서 2문항이, 현대시 세트에서 1문항이 오답률 TOP10에 포함되었다. 42번, 45번 문항의 경우 마지막 세트인 만큼 시간 관리 측면에서 오답률이 높아진 원인도 있겠으나, 45번 문항의 경우 묻고자 하는 ‘연출 계획’에 대한 요소도 수험생들에게 낯설었을 것이다. 따라서 45번과 23번 문항에 대해서도 따로 문항 해설을 수록하였다.

[정보량]

구분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화작언	화법[1~3]	1,059	화법[1~3]	1,016
	화법/작문[4~7]	2,213	화법/작문[4~7]	1,950
	작문[8~10]	818	작문[8~10]	975
	문법[11~15]	1,062	언어(문법)[11~15]	1,132
소계		5,152		5,073
독서	인문[19~22]	1,286	통합[16~21]	2,278
	사회[27~31]	1,791	기술[25~28]	1,463
	융합[37~42]	2,505	사회[29~33]	1,473
소계		5,582		5,214
문학	현대소설[16~18]	2,378	현대시[22~24]	654
	고전소설[23~26]	2,699	현대소설[34~37]	2,318
	고전시가/수필[32~36]	2,029	고전시가[38~40]	903
	현대시[43~45]	486	고전소설-시나리오[41~45]	3,525
소계		7,592		7,400
합계(지문)		18,326		17,687
합계(전체)		36,550		36,046

- 01 전체 정보량의 경우 꾸준히 36,000자~37,000자 내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번 시험의 경우 전체 정보량은 36,046자로 작년 6월 모의평가보다 적었고, 36,801자였던 작년 수능보다도 다소 적었다.
- 02 이는 화작언, 독서, 문학 영역에서 모두 정보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독해의 부담이 큰 독서 지문의 정보량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과, 화작언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대목인 화법/작문 융합 세트의 정보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평가원이 최대한 학생들의 독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03 독서의 정보량은 5,251자였던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독서의 정보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해당 시험의 변수였던 법학 지문과 같이 정보 밀도가 극도로 높은 지문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독서 지문 자체가 주는 부담은 적었을 것이다. 오답률이 높았던 것은 개별 문항들의 선지를 판단하기 까다로웠던 탓이 크겠다.

II

영역별 특징과 경향

1. 독서

01. 출제 경향

- 총평

코로나 사태라는 변수를 의식하여, 학생들이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을 최대한 낮추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 지문

- 세 지문 모두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정보량을 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나마 사회 지문 마지막 문단에서 정보량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그 결과 32번의 오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본인이 독서 영역에서 많이 문항을 틀렸다면 이는 지문을 잘못 읽은 결과라기보다는, 선지의 표현이나 발문의 의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더 높다.

- 문항

- 31번 문항의 형식을 통해 독서 교과 내용을 반영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22 예시 문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다.

- 16번 문항은 주제 통합형으로 묵인 (가)와 (나) 두 지문의 서술 방식을 묻고 있다. 2022 예시 문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가)와 (나) 두 지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은 바가 있다. 두 지문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읽어 낼 필요가 있겠다.

- 2022 예시 문항을 비롯하여 꾸준히 출제되었던 소위 ‘비판하기’ 유형의 문제가 이번에는 출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이후 평가원 시험에서는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02. 지문 분석

- [16~21] 인문+인문 : 주제 통합형 지문

① ‘과거제’라는 공통된 주제에 대하여 과거제를 옹호하는 관점을 다룬 (가)와, 과거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관점을 다룬 (나)가 통합형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2022 예시 문항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평가원 시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이감 모의고사 역시 이런 경향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② 연계 양상 : EBS 수능특강 50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과거제’, ‘유형원’, ‘공거제’를 부수 개념소로 연계시켰다. 실질적인 연계 체감은 상당히 낮았을 것이다. ‘핵심 개념소 → 부수 개념소’는 평가원이 흔히 사용하는 연계 방식으로, 이감 모의고사 역시 이런 연계 방식을 자주 따르고 있다. 간쓸개에 수록된 EBS 독서편 분석을 개념소 단위로 제공한 것 역시 같은 이유 때문이다.

③ 특이한 문항 구성

16번 - 두 지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서술 방식’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 역시 2022 예시 문항의 경향을 반영한 출제에 가깝다.

20번 - 형식적 측면에 국한해서 보면, 다소 새로운 형태의 <보기> 구성이다. 지문의 내용을 ‘조선 시대 선비들의 견해’라는 다른 형태로 다듬어서 제시했다. 내용적으로 새롭거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 [25~28] 기술 : 단일 지문

①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제재가 기술 지문인데, 해당 지문의 정보량은 상당히 평이했다. 다만 28번 문항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수험생들이 지문의 해당 지점을 충분히 읽어 내지 못했거나 선지의 사소한 함정에 반응했기 때문이다.

② 연계 양상 : EBS 비연계 지문이다. 간쓸개 5주차에서 지문에 등장하는 OIS 기술의 핵심 부품인 ‘자이로 센서’를 다룬 바가 있다. 다양한 소재의 고난도 지문을 충분히 읽어 보는 경험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③ 문항 구성 : 28번 - 오답률이 높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문항 해설]에서 설명하였다.

고난도 문항 해설 28번

28 지문의 개념을 <보기> 사례에 적용 (오답률 : 67.5%)

❖ <보기> 설명

- 1) 광학 영상 안정화(OIS) 기술은 이미 적용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먼저다.
- 2) 이후에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려 한다는 것은, 디지털 영상 안정화(DIS)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정 작업은 k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들을 찾고, 다음 k+1번째 프레임에서 같은 특징점들을 찾아, 두 프레임 사이에서 같은 특징점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것이다.

❖ 정답 설명

- ② k+1번째 프레임을 소프트웨어로 보정한 결과 프레임의 크기가 변했다는 것은,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비어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이 공간을 잘라 냈다는 얘기다. 그 결과 프레임의 크기가 작아진다. 비어 있는 공간을 잘라 냈다면, 그만큼 원래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을 것이다. 영상의 화질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애초에 선지에서 판단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지문에서 판단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많이 고른 순서대로

- ③ k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것은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는 부분으로, 빌딩의 모서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는 분명히 ‘빌딩의 모서리’와 다르다. 치졸한 함정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별수 없다. 치졸한 함정이든 근사한 함정이든 똑같이 오답이다.
- ④ <보기> 설명에서 강조한 대로 k번째와 k+1번째 프레임 모두 OIS 기능은 이미 적용된 상황이다. OIS 기능과 DIS 기능은 분명 별개의 기술이었다.
- ① ‘프레임의 모서리’가 아니라 ‘빌딩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는 부분이 특징점으로 선택되기에 적합한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치졸한 함정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별수 없다.
- ⑤ 묻는 지점은 ④와 다르지 않다. 이미 적용된 기술은 OIS 기능이고, DIS 기능은 앞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 [29~33] 사회 : 단일 지문

- 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세’를 특히, 영업 비밀과 연결 지어 출제했다. 이는 최근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출제 경향과도 잘 맞아 있다. 이후 평가원 모의고사 및 수능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감 모의고사 역시 다양한 최근의 경제적 상황들을 소재로 녹여 내고 있다.
- ② 연계 양상 : EBS 수능특강 108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 ‘특허’, ‘영업 비밀’을 부수 개념소로 연계시켰다. 연계 체감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지문의 핵심 개념소인 ‘디지털세’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 ③ 문항 구성
- 31번 - 독서 활동에 가까운 <보기> 문항이었다. 2~3문단의 초점에 해당하는 내용이 곧 ㉠인 만큼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 다면 정답을 선택하기 쉬웠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정답을 선택하기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 32번 -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문항 해설]에서 설명하였다.

고난도 문항 해설 32번

32 지문의 개념을 <보기> 사례에 적용 (오답률 : 61.7%)

❖ [A] 설명

- 1)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이다.
- 2) ICT 지식 재산 보호가 약할수록 유인 비용은 증가하고, 접근 비용은 감소한다.
- 3) ICT 지식 재산 보호가 강할수록 유인 비용은 감소하고, 접근 비용은 증가한다.
- 4) 따라서 최적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유인 비용+접근 비용이 최소화되는 수준이다.
- 5) 최적의 수준이 어느 국가에서나 같다면 훨씬 쉬웠겠지만……
- 6) …… 지문에 따르면,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한 입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 7) 이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특허와 같은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반해, 국민 소득이 그것보다 낮은 국 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호 수준이 국민 소득이 더 낮은 국가들보다 더 약하기 때문이다. 이를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 소득 수준	특허 보호 수준
① 가장 낮음	②보다 강함
② 가장 낮음 초과 ~ 일정 수준 미만	약함
③ 일정 수준 이상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강해짐

- 8) ②에 해당하는 국가들에게는 특허 보호 수준을 낮춤으로써 유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접근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 다. 따라서 이들은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 9) 반대로 ③에 해당하는 국가들에게는, 접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유인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 10) 마지막으로 ①에 해당하는 국가들에게는 ②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접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유인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 <보기> 설명

- 1) S국은 ‘[A] 설명-7)’에서 정리한 표에서 ①에 해당한다.
- 2) S국은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며, 특허 보호 정책이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따라서 이들의 특허 보호 정책은 곧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의미한다.

❖ **정답 설명**

③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추는 것은 '[A] 설명-2)'대로 접근 비용을 낮추는 것이지, 높이는 것이 아니다.

❖ **오답 설명 : 많이 고른 순서대로**

- ④ 요구하는 추론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지문의 [A]를 제대로 읽어 내지 못했다면, 해당 선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테다.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A] 설명-7)'에서 정리한 표에 따르면 ①에서 벗어나 ②로, 그리고 ③에 해당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 보호 정도' 역시 현재 수준에 비해 약해졌다가, ③에 해당하는 국가가 되었을 때 점차 강해질 것이다. '[A] 설명-8), 9)'를 참조해라.
- ② S국은 상대적으로 강한 '특허 보호 정책'을 따르고 있을 것이다. 이는 '[A] 설명-10)'대로 유인 비용[→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이 더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 ⑤ S국이 '특허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유인 비용[→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은 감소하고 접근 비용[→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은 증가할 것이다.
- ①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은 '[A] 설명-3)'대로 유인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S국이 유인 비용을 크게 인식한다면 유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다. 따라서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에 관심을 갖는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길 바랄 것이다.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경제 - 디지털세

특허권, 영업 비밀, 지식 재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 디지털세, 법인세, 자회사, 로열티, 유인 비용, 접근 비용

문단 1 ICT 다국적 기업의 과세 문제

- 1)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 ➔ 한마디로 '특허권'은 특허를 소유한 자가, 해당 발명의 내용을 정해진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권리다.
- 2)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직접 획득해야만 하는 '특허'와 달리, '영업 비밀'은 일정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 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일정 조건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돼 있지 않다.
- 3)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 ➔ 맞다. 특허권과 영업 비밀 모두 법으로 보호 받는 '지식 재산'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이런 지식 재산을 바탕으로 창출되는 분야가 바로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이란단.
- 4)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 ➔ 초점이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창출한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로 옮겨지고 있다. 세금이야 지식 재산으로 창출한 만큼 매기면 그만일 텐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문단 2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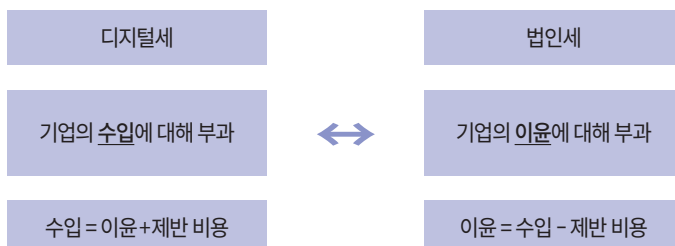
- 1)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 ➔ 보아하니 디지털세를 모든 나라에서 도입한 건 아닌가 보다. '디지털세'는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데, 좀 더 읽어 보자.
- 2)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부과되는]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 ➔ 없던 디지털세를 만든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그런데 법인세는 뭘까?
- 3)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 ➔ 앞에서 '씩' 읽혔더라도 디지털세가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면, 법인세는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여기서 잘 봐 뉘야 한다.
 - ➔ 2)에서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를 제시했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이니까, 법인세가 감소했다면 ICT 다국적 기업의 이윤이 줄어든 데 원인이 있겠다. 이것이 ICT 다국적 기업의 '과세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 보다.

▶ 맥락 짚기

문단1-4)의 과세 문제가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세'에는 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게 분명하단데……

▶ 맥락 짚기

문단2-1)의 '디지털세'가 왜 특별한 것인지 이제는 알 수 있겠다. 디지털세는 수입에 직접 부과하는 만큼 전체 수입이 줄지 않는 한, 감소할 이유가 없다.



문단 3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 방법

- 1)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준다면, 법인세는 기업의 이윤에 부과되는 만큼, 기업은 법인세를 덜 낼 수 있을 게다. ‘과세 문제’가 어떤 꾀수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이제 대강 알겠다.

- 2)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 ICT 다국적 기업 Z사의 이윤이 100억이라고 가정해 보자. 법인세율이 7%인 국가에서 그 이윤이 발생했다면, 7억을 법인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인세율이 1%인 A국에 자회사를 세우고 100억의 이윤을 몰아주면 법인세는 고작 1억으로 줄어든다.

→ 결국 ‘법인세 회피’가 가능하려면 다국적 기업이 특정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이 관건일 텐데, 아마도 ‘특허 사용 권한’을 자회사에 부여하는 것과 관계있나 보다.

- 3)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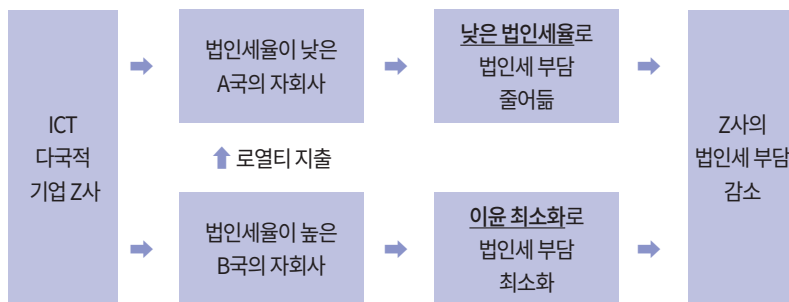
→ Z사는 다국적 기업이니 자회사를 여러 나라에 세울 수 있을 게다. B국의 자회사에서 특허로 인한 수입이 발생했다면, B국의 자회사는 A국의 자회사에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출한다. 그렇다면 A국의 자회사 수입은 증가할 테고, 반대로 B국의 자회사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 4) **그 결과** [→ 법인세율이 높은 B국의 자회사에서 법인세율이 낮은 A국의 자회사로 로열티를 지출한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Rew 문단2-3)에서 ‘법인세’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었음을 떠올려야겠다.

→ 법인세는 ‘수입’이 아니라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동일한 수입이라도 **이윤이 적으면** [→ 비용이 크면] 법인세도 감소한다. B국의 자회사 이윤이 원래는 100억이었는데 **로열티를 A국의 자회사에 30억 지출하게 되면** [→ 비용이 30억 늘어나면], 이윤은 70억으로 줄어든다. 그 결과 법인세율이 높은 B국의 자회사에는 이전보다 법인세가 덜 부과된다.

→ A국의 자회사는 수입이 늘어났으니, 이윤도 늘어나서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A국은 법인세율이 낮으니까 부담도 덜하다. 결과적으로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은 줄어든다.



- 5)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세워 둔 자회사를 통해 법인세를 낸다. 따라서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 징수될 법인세도 줄어든다. 그렇다면 각국에서는 이런 ICT 다국적 기업의 과세 문제 해결에 적극적일 듯한데……

- 6)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 그렇겠다. ICT 다국적 기업의 뛰어난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 기술력이 자국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디지털세 도입에는 오히려 소극적일 수도 있겠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것보다 자국의 ICT 산업 발전이 중요한 국가라면, 디지털세를 굳이 도입할 이유는 없겠다.

▶ 맥락 짚기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어떤 방식으로 회피하는지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자.

참고

‘자회사’는 다른 회사에 의해 지배·종속되고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 자회사의 주식은 모회사인 지배 회사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다. 자회사는 그 자신의 법인격과 정관을 갖고 있는 점에서 모회사의 지점과는 다르다. 모회사는 기존 회사의 지배에 필요한 주식을 매입 또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함으로써 자회사를 갖게 된다.

문단 4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

- 1)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는 문단3-6)에서 설명했듯이 오히려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이들은 그 대신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지식 재산을 보호해야만 ICT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테니 당연히 그럴 게다.
- 2)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 'ICT 지식 재산 보호'가 약하면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는 문제가 생기고, 강하면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다. 결국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적정 수준에서 'ICT 지식 재산 보호'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겠단다.
- 3) 전자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 경제학적 접근이다. 지식 재산의 보호 정도가 약해져서 발생하는 손해를 '유인 비용', 지식 재산의 보호 정도가 강해져서 발생하는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 한단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지식 재산 보호 수준 ↓ = 유인 비용 ↑, 접근 비용 ↓
 지식 재산 보호 수준 ↑ = 유인 비용 ↓, 접근 비용 ↑

 - 결국 두 비용 합이 최소가 되는 수준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이라는 얘기다.
- 4) 각국은 그 수준→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 보아하니 국가마다 '유인 비용 + 접근 비용'의 최소를 달리 인식하나보다.
- 5) 특히 보호 정도→ 지식 재산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
 - Rew** 문단1-3)에서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특허권이나 영업 비밀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나라에서는 특히 보호 정도도 소득에 비례한단다. 한마디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을 높게 설정한다는 얘기다. 이는 유인 비용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여, 접근 비용을 늘리더라도, 유인 비용을 줄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결과다.
- 6)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 한마디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을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한다는 얘기다. 이는 상대적으로 접근 비용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여, 유인 비용을 늘리더라도, 접근 비용을 줄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국민 소득 수준	특히 보호 수준
① 가장 낮음	②보다 강함
② 가장 낮음 초과 ~ 일정 수준 미만	약함
③ 일정 수준 이상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강해짐

주목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개념을 잘 이해해 두자.

2. 문학

01. 출제 경향

- 1) ‘비교 문학적 접근’과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관점에서의 출제가 두드러졌다. 개별 작품이 갖고 있는 특성에만 주목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보다는 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다른 작품과 장르와 주고받은 영향 관계를 고려한 출제가 눈에 띄었다. 그러다보니 <보기>도 개별 작품의 작품론이나 작가론이 아닌 문학사적 맥락에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2022 예시 문항’을 통해서도 감지된 것이다.
- 2) 출제되는 작가, 작품의 폭이 넓어졌다.
 - 현대시 : 1970년생 시인의 작품
 - 소설 : 2000년 발표
 - ※ 작년 수능에 출제된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은 1996년에 출간된 작품임
 - 시나리오 : 2009년 상영작. 출제되었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최신작임

➡ ‘비교적 젊은 작가들의 최근 작품은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통념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 3) EBS 체감 연계율이 낮았다.

장르	문항수	제목	EBS 연계
현대시	3문항	조지훈, <산상의 노래>	수능특강 85쪽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비연계
현대소설	4문항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수능특강 15쪽 (수능특강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 출제)
고전시가	3문항	정철, <관동별곡>	작가 연계
고전소설 & 시나리오	5문항	작자 미상, <전우치전>	수능특강 136쪽 (수능특강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 출제)
		최동훈, <전우치>	비연계

- ➡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학 6개 작품 중에서 학생들이 EBS를 통해 직접 접한 작품은 현대시 1편이다.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EBS 연계율은 낮아진 셈이다.

02. 지문별 분석

1) [21~24] 현대시 : 조지훈, <산상의 노래>/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22번 문항은 표현 기법이 주제 형상화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함께 묻고 있으나, 두 작품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묻지는 않았다.
- 23번과 24번은 각각 (가)와 (나)의 한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물었다.

고난도 문항 해설 23번

❖ 정답 설명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 '나래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선택지를 끊어서 살펴보기]
-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 : A가 B로 이행(= 다른 상태로 옮겨감)한다는 것은 A가 B가 아닌 다른 상태에 있다가 B의 상태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이행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행하는 주체이고 '선진국'은 이행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 [A]의 '무엇'과 [B]의 '무엇'은 모두 화자가 곁에 없어서 결핍을 느끼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대상일 뿐이다.
 - '나래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 : 지향점은 미래에 도달하고자 지점이다.
 - 나래 떨던 샛별 → [긴 밤 동안]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에게 [아침이 왔으니 이제는] 숨으라고 한다. 화자가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없다.
 - 향기로운 싸릿순 → 사랑하다는 겸손히 받지 않거나 남에게 양보하는 것을 뜻한다. 화자는 이제는 사슴과 토끼가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다투지 않고 서로 양보하는 것'을 화자가 지향한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싸릿순 자체가 화자가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라고 보기는 힘들겠다.

❖ 매력적인 오답 해설

-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A]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울음은 화자가 느낀 슬픔이란 정서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화자를 슬프게 만든 문제적 상황의 의미한다.
 - [A]에서 긴 밤을 홀로 지내는 것, 간구하는 '무엇'의 결핍 등이 화자를 울게 만든 문제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B]에서 화자는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한다고 했다. 이때 '무엇'은 기다림의 대상이다. 현재는 곁에 없지만 미래에 함께 있기를 기대하는 긍정적인 대상인 것이다.
 - ①의 선택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에] 화자를 울게 한 문제적 상황 ≠ 화자가 기다리는 [미래의] 긍정적 대상
 - ①은 틀렸다고 할 수가 없겠다.

2) [34~37] 현대 소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현재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이 출제되었다.
- 출제된 대목은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풍자'나 '부조리한 농촌 현실에 대한 고발'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것처럼 민담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출제되었다. 이는 문학사적 흐름에서 문학 장르와 장르, 작품과 작품이 주고받는 영향에 주목하려는 비교 문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38~40] 고전시가 : 정철, <관동별곡>

- 평가원과 EBS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작가인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이 출제되었다.
- EBS에서는 정철의 <속미인곡>과 한시 <증별>이 출제되었으니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EBS 교재 공부를 통한 효용감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EBS 연계 작품으로 <사미인곡>이 출제된 뒤 그 해 수능에 작가 연계로 <성산별곡>이 출제 되었으며,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사미인곡>이 나오고도 수능에 <속미인곡>이 출제된 바가 있다. 따라서 송강 정철의 주요 작품을 학습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4) [41~45] 고전소설 - 시나리오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최동훈, <전우치>

- (가)는 고전소설 <전우치전>의 결말에 가까운 부분이며 (나)는 현대를 배경으로 한 시나리오 <전우치>의 첫 번째 장면이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 고전소설에 대한 감상과 수용이 단순히 옛이야기를 읽는 효용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문학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출제 방향이다.
- <보기>에서는 전형적인 영웅 소설의 특징을 보여 주고 전형적 영웅 소설과 전우치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고 있다.
- 정리 : 전형적 영웅 소설 ⇨ 고전소설 <전우치전> ⇨ 시나리오 <전우치>
 <전우치전>이라는 개별 작품의 특징에 집중하지 않고 비교 문학적으로 접근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난도 문항 해설 45번

❖ 문항 해설

- 1) 시나리오를 영화로 제작할 때,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다.
- 2) 이때 연출 계획은 감독마다 다를 수 있고, 심지어 같은 감독이 같은 시나리오를 다시 영화화더라도 연출 계획이 같을 수는 없다.
- 3) 따라서 연출 계획은 이러한 장면은 반드시 이렇게 연출해야 한다는 모범 정답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 유형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식의 부정적 발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다.
- 4) 수험생은 선택지를 '가능한 연출 계획'과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연출 계획'으로 나누어, '결호 허용될 수 없는 연출 계획'을 정답으로 고르면 된다.

❖ 정답 설명

- ④ ㉔ :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 주어야겠다.

㉔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이 분다)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순식간에 장대비가 내린다) 땅을 접어 달리고 (술상을 향해 축지법으로 갔다가 돌아온다)

- 바람이 불고, 이어서 장대비가 내릴 때, 도사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인물의 대사에 따라 여러 효과가 더해질 뿐이다.
- 인물의 대사 중에서 '바람을 다스리고'라는 대목과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라는 대목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바람이 부는 것과 순식간에 장대비가 내리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은 연출가의 재량에 달려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단지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에 불과하다.

❁ 매력적인 오답 설명

② ㉠ :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겠군.

➡ 전우치의 심리를 보여 주기 위해서 전우치의 표정을 보여 주자는 거다.

③ ㉡ :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 주어야겠군.

➡ 왕의 심리를 보여 주기 위해 왕의 시점으로 대상을 보여 주자는 거다.

- 등장인물의 심리를 보여 주기 위한 연출 방법으로 연출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서 보여 줄 수 있겠다. 무엇을 택하든 연출가 마음인 것이다.

- 1) 인물의 표정, 눈빛을 보여 주거나
- 2) 인물의 시선으로 인물의 눈에 비친 장면을 보여 주거나
- 3) 그 외 다수의 방법 (다양한 소도구나 시공간적 배경을 활용하는 방법 등)

3. 화법 · 작문 · 언어(문법)

01. 화법 · 작문

- ‘화법과 작문’은 ‘화법(3개 문항) / 화법&작문 복합(4개 문항) / 작문(3개 문항)’의 3세트로 출제되었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후 지속되어 오는 출제 형식(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때만 유일하게 4세트로 출제)이어서 학생들에게 익숙했을 것이다.
- ‘화법과 작문’의 지문과 문항의 분량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다.
-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지문의 내용도 평이했던 데다 문제 풀이 때에도 경쟁 선지라 할 만한 선지들이 눈에 띄지 않아 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 올해 ‘화법과 작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화법(1~3문항)’에 ‘연설’이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후 ‘화법’에는 ‘발표’와 ‘강연’(2019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라디오 방송’도 ‘강연’과 비슷했음)이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왔는데, 몇 년 만에 이 틀이 깨진 것이다. ‘연설’은 2016학년도 수능 B형에서 딱 한 번 출제된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출제되었다. 하지만 지문이 연설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발표에 가깝다.
- 또한 ‘화법과 작문’의 복합 문제(4~7번)가 출제된 이래 처음으로 지문이 (가), (나), (다)의 세 개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항상 (가)와 (나)의 두 지문으로 각각 화법과 작문이 한 세트씩 출제되었다.
- 문항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번’으로, ‘화법 지문 (나)’와 ‘작문 지문 (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지문 (가)’을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화법적 특성과 작문적 특성을 지닌 지문들 간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 것이 상당히 새롭다.

[문항 구성]

분야	EBS 연계	분석
화법 [1~3] (연설)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림	수특 125쪽 - 아주 느슨한 연계 (황새 복원 - 황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계 복원과 조성에 관한 내용)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후 지속적으로 출제되던 ‘발표’와 ‘강연’이 출제되지 않고 ‘연설’이 출제되었다. 그런데 지문을 살펴보면 <u>연설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소개하는 발표에 가깝다.</u> 다만, 문항의 구성은 ‘화법’에서 항상 질문해 왔던 형식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화자(연설자)의 말하기 방식(1번), 매체 자료 활용(2번), 청중의 듣기 활동(3번)에 관한 구성으로, 이는 기존의 ‘화법’ 출제 방식과 동일하다. [문항별] 1. 연설자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것으로 발문과 선지 모두 익숙한 문항이다. 2. 연설 홍보를 위한 포스터이며 그 안에 이미지 자료가 들어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매체 활용 문제는 아니다. 매체 자료에 텍스트가 주로 포함되어 있고, 그나마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도 문제 풀이에 이용되는 매체 자료가 아니어서 <u>매체 활용 문제의 옷을 입은 내용 확인 문제였다.</u> 3. 청중의 듣기 활동 문제이다. 그런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문장과 연결하여 연설에서 <u>연설자가 주장한 바를 요약해 내는 문제였다.</u>

분야	EBS 연계	분석
화법과 작문 [4~7] (인터넷 자유 게시판&대화& 건의문)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비연계	기존에 등장하던 화법과 작문의 복합 지문 세트이다. 특징적인 것은 ‘자유 게시판에 학생이 올린 글’ (가)가 제시되고, 이를 계기로 ‘대화’ (나)[→ ‘대화’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토의’라 볼 수 있다.]를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다시 ‘건의문’ (다)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문이 (가), (나), (다) 3개이다.] 기존에는 지문이 두 개만 출제되었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세 개의 지문이 출제되었다. 또한 추가된 지문인 (가)가 매체 형식의 지문이라는 점이다. 내년부터 출제되는 ‘언어와 매체’의 ‘매체’ 형식을 살짝 보여 주려 의도한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문항별] 4. 자유 게시판 (가), 대화 (나), 건의문 (다)의 세 개 글을 비교하여 그 특징들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특히 구어적 특징과 문어적 특징을 비교하는 선지가 세 개나 있는데, 대화여서 명백히 구어적 특징을 가지는 (가), 건의문이어서 명백히 문어적 특징을 갖는 (나), 자유 게시판의 글이어서 문어이지만 구어적 특징을 갖는 세 글이 선지에서 비교되고 있다. 5. 대화(토의)에서의 말하기 방식(혹은 대화에 대한 이해)을 묻는 문제로 기출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6. 건의문의 글쓰기 전략을 묻는 문항이다. <보기>에는 작문에서 설득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설득 전략과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고, 그것이 지문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찾게 하고 있다. 7. (나)와 (다)를 연계한 문항으로, (나)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때 <보기>에 자료로 건의문의 내용 조직을 제시하여, <보기>와 (나), (다)까지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했기 때문에 많이 빠져야 할 것 같지만 막상 답은 쉽게 찾아진다.
작문 [8~10] (설명문) 올바른 물 섭취 방법	수특 51쪽 - 아주 느슨한 연계 (브레인 푸드 - 음식을 올바른 섭취 방법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	작문 상황에 따른 학생의 글쓰기 문제는 기존에 자주 출제되던 형식이다. 다만, 기존에는 항상 문항에서 자료를 <보기>로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는 자료를 지문에 끼워 넣어 자료 활용의 적절성을 평가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정보 제공을 하는 설명문이지만 물 섭취에 관한 비교적 단순한 내용이 지문에 나타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실험이 등장하는 데 상당히 엉성했다. [문항별] 8. 자료를 선별하여 초고를 작성하였는지 이해하는 문항이다. 기존에는 자료의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이 글에 반영되었는지만을 물었던 것에 비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자료를 선별해 낼 수 있는가를 추가로 묻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 9. 발문은 내용 조직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자주 출제되던 글쓰기 전략 문제라고 볼 수 있다. 10.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추가하는 문제로, 기존에 자주 출제되던 것이다.

02. 언어(문법)

- 개정된 교과서에 맞추어 ‘국어 규범’ 영역의 문제가 출제되었다.(15번 문항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단, 개정된 교과서의 영역이긴 하지만, 조사와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라는 문법 사항은 다른 영역에서도 학습 가능한 문법 사항이었다.
- ‘음운론’ 영역이 출제되지 않았다. 2016~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음운 영역 출제가 배제된 적은 없었다.(단,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는 음운 영역 출제가 배제된 적 있음)
- ‘담화’와 ‘문법 요소’라는 두 가지 문법 사항을 결합하여 하나의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하였다.
- 특이 문항

14번 - 명사절에 대해서 묻기는 했지만, 물어보는 방식이 학생들에게 낯선 형태였다. 기존에는 명사절에 밑줄 치고 명사절의 기능을 물어봤다면, 이 문항은 문장의 서술어에 밑줄을 치고 해당 서술어가 들어 있는 문장의 명사절의 기능을 물어봤다.(명사절이 아닌 서술어에 밑줄을 치고 물어봄)

[문항 구성]

문항	출제 영역	세부 출제 사항
[11~12]	담화 문법 요소	*담화 : 지시 표현, 대응 표현, 접속 표현 *문법 요소 : 높임법, 서법
13	국어사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14	통사론	명사절이 문장에서 수행하는 기능
15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단어는 띄어쓰되 조사는 앞말에 붙인다)

III

총평 및 수험생을 위한 조언

총평

01. 2022 예시 문항의 출제 경향 반영

- 독서 : 2022 예시 문항에서 제시된 주제 통합형 지문이 출제되었다.
- 문학 : 문학사적 접근, 비교 문학적 접근을 통한 지문 구성과 보기가 두드러진다.
- 화작 : '매체'를 의식한 출제가 눈에 띈다.

02. EBS 체감 연계율 하락

- 독서 : EBS 수능특강의 핵심 개념이 6월 모의평가 지문에서는 부수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항은 비연계 지문에서 출제되었다.
- 문학 : 7개 작품 중에서 EBS 수능특강을 직접 활용한 작품은 현대시 1개에 불과했다.
EBS 수능특강에서 연계된 작품 2개는 EBS와 다른 부분이 출제되었다.

03. 평이한 지문 VS 까다로운 선택지

- 지문의 길이는 짧고 정보의 밀도가 낮아서 지문을 읽는 데는 부담이 적었을 것이다.
- 선택지는 맞고 틀림을 판별하기에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서 시험의 적당한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수험생을 위한 조언

- 독서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 내는 힘인 문해력이 없다면 수능 국어에서 고득점은 불가능하다.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난이도의 지문을 읽고 스스로 이해하는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 2개의 제시문을 묶어서 출제되는 주제 통합형 지문이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되었으니 올해 수능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양한 방식과 난이도로 2개의 지문이 묶일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 EBS에 수록된 작가의 다른 작품을 연계하거나, 연계 작품과 비연계 작품을 함께 묶는 방식 등 EBS 연계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수험생들은 EBS 교재를 활용하되, EBS에 연계되지 않은 낯선 작품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학습해야 한다.
- 화법과 작문은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길러야 한다. 화법과 작문의 모든 문제를 다 맞혀도 시간을 지나치게 쓰면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최적화된 경로인가를 고민하며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 언어(문법)는 지금까지 오답률 5위에 들어가는 고난도 문제가 반드시 1문제 이상 출제되는 분야이다. 문법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방식의 문제를 접하여 두는 것도 고득점을 위해 필요하다.
- 선택지 분석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 부분에 적절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IV

연계 양상

영역	세부 영역	주제	EBS 수록	이감 연계 양상
독서	인문	과거제의 장점과 필요성	p.50	2020 이감ON 1차 / 2020 이감 특별판 1차
		반계 유형원의 공거제	p.50	
	기술	영상 안정화 기술	비연계	2020 간쓸개 5주차
	사회	특허와 영업 비밀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p.108	2020 이감 시즌4 2차 2020 간쓸개 특별판 vol.2(경제와 법) 2020 간쓸개 16주차
문학	현대시	조지훈, <산상의 노래>	p.85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비연계	
	현대소설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p.15	2020 이감 시즌2 2차 2020 간쓸개 12주차
	고전시가	정철, <관동별곡>	작가 연계	-
	고전소설 & 시나리오	<전우치전>	p.136	2020 이감 시즌4 3차
		최동훈, <전우치>	비연계	
화법·작문	화법	연안 생태계의 보호 필요성	p.125	2020 이감 시즌2 1차 지문 2020 이감ON 1차 / 2020 이감 특별판 1차 1번, 2번 2020 이감 시즌2 1차 1번, 3번 2020 이감 시즌2 2차 2번
	화법과 작문	안전한 등갯길 만들기	비연계	2020 이감 시즌4 3차 8번, 10번 2020 이감 시즌2 1차 5번 2020 이감 시즌4 5차 10번
	작문	올바른 물 섭취 방법	p.51	2020 이감ON 1차 / 2020 이감 특별판 1차 지문, 7번 2020 이감 시즌4 1차 8번
언어(문법)	담화 문법 요소	*담화 : 지시 표현, 대응 표현, 접속 표현 *문법 요소 : 높임법, 서법	p.210 1-2번 p.241 2번 p.244 2번 p.245 4번 p.246 5번	2020 이감 시즌1 2차 11-12번 2020 이감 시즌2 2차 15번 2020 이감 시즌4 6차 15번 2020 강대 모의고사 1차 15번
	국어사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p.215 2번 p.286 15번	2020 이감 시즌1 1차 11번 2020 이감ON 1차 / 2020 이감 특별판 1차 15번
	통사론	명사절이 문장에서 수행하는 기능	p.208 3번 p.234 3번 p.235 5번	2020 이감 시즌2 2차 11번 2020 이감 시즌4 2차 12번 2020 이감 시즌4 3차 13번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단어는 띄어 쓰되, 조사는 앞말에 붙인다)	p.228 1번 p.251 2번	2020 이감ON 1차 / 2020 이감 특별판 1차 13번 2020 강대모의고사 1차 11번

독서-인문 : 과거제와 반계 유형원의 공거제

동일한 ‘과거제’라는 주제에 대하여 기존 과거제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유형원’의 ‘공거제’를 중심 소재로 다룸.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인식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제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고염무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중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2020 이감ON 1차 2020 이감 특별판 1차

[26~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왜란과 호란을 겪고 난 조선 후기는 갖가지 사회 모순으로 백성의 삶이 피폐해져 가던 시기였다. 당대 이념인 정통 유학으로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일부 학자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유학에 접근하였다. 반계 **유형원**은 기존 유학의 토대 위에서 ‘실리(實理)’라는 개념을 재정립하여 당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혁안을 세웠다.

(중략)

백성에게 생계에 필요한 재산인 **항산(恒産)**이 있어야 ‘인의’ 같은 도덕 원리가 확립된다는 옛 성인의 말을 받아들여, 이것이 지나친 욕망을 부추겨 ㉠ 도덕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로써 제어한 것이다. 또한 반계는 군역 문제도 이 균전제와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표적으로 장정 1인당 토지 1경(頃)에 대한 수전권을 부여하고 4경을 단위로 병사 1명을 징발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4경 단위에서 1명이 정병(正兵)으로 복무하면 나머지 3명은 보인(保人)이 되는데, 보인은 쌀 12두나 베 2필을 정병에게 지원함으로써 복무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균전제가 갖춰져 있더라도 지식인층이 도덕적으로 부패하면 사정이 다시 생길 수 있으므로, 반계는 이를 막기 위해 **공거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권층이 모범 답안을 외워 한 번의 시험으로 관리가 되는 **과거제와 달리 공거제**는 계통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양성된 자를 관료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교육을 받을 기회는 양민에게도 주어지며, 관료가 된 자는 직급에 따라 2~12경의 토지에 대한 수전권과 녹봉을 지급받고 군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벼슬을 그만두면 녹봉은 중단되고 일반 백성처럼 ㉢ 수전권만 인정되도록 했다.

『반계수록』에 담긴 내용은 비록 조선 사회에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개혁안은 후세 학자에게 영향을 주어 실학이란 학풍을 일으키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독서-기술 : 영상 안정화 기술

해당 지문은 비연계 지문이었지만, 이감에서 OIS 기술에서도 활용되는 '자이로 센서'를 HMD 기술과 관련하여 간쓸개에서 다룸.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 등이 있다. 광학 영상 안정화(OIS)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렌즈 모듈은 보정용 렌즈들을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 피사체의 상이 맺히고,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에 영상으로 저장된다.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한다. 이때 OIS 기술이 작동되면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된다.

28.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새로 산 카메라의 성능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OIS 기능을 켜고 동영상 촬영했다. 빌딩을 찍는 순간, 바람에 휘청하여 들고 있던 카메라가 기울어졌다. 집에 돌아와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려 한다.**

(촬영한 동영상 중 연속된 프레임)



㉠ k 번째 프레임 ㉡ k+1 번째 프레임

- ① ㉠에서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으로 특징점을 선택하는 것이 움직임을 추정하는 데 유리하겠군.
- ② ㉡을 DIS 기능으로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 크기가 변했다면 흔들림은 보정되었으나 원래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겠군.
- ③ ㉠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고 그 차이를 계산하여 ㉡을 보정하겠군.
- ④ ㉠은 OIS 기능으로 손 떨림을 보정한 프레임이지만, ㉡은 OIS 기능으로 보정해야 할 프레임이겠군.
- ⑤ ㉡을 보면 ㉠이 촬영된 직후 카메라가 크게 움직여 DIS 기능으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2020 간쓸개 5주차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이로 센서가 측정한 매 순간의 각속도를 고개가 움직이는 시간에 따라 적분하면 회전 각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자이로 센서의 미세한 오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 누적되어 점점 커진다. 그래서 각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의 값을 종합하여 오차를 보정해야 한다. 한편 요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자기 센서로 측정한다. 지자기 센서 역시 고개가 움직이는 동안 정확한 값을 얻기 힘들어서 **자이로 센서**로 얻은 값들을 활용한 보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얻은 값들을 토대로 **화면의 영상을 조정하면** 현실에서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는 경우와 ㉡ **동일한** 상태가 구현되므로 현실감이나 몰입감이 높아진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동작 1~3'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음의 동작 1~3은 HMD를 착용한 체험자가 정면을 똑바로 보다가 고개를 움직여 취한 동작들이다. HMD에는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 지자기 센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헤드 트래킹 기술을 토대로 하여 이들 센서에서 얻은 값으로 **영상을 조정한다.**

- 동작 1: 고개를 뒤로 젖힌 채로 멈추었다.
- 동작 2: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 동작 3: 정면을 보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인 후 멈추었다.

- ① 동작 1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고개가 젖혀진 각도에 대해 가속도 센서만 활용하여도 계산할 수 있겠군.
- ② 동작 2의 과정에서 가속도 센서를 통해 측정되는 x축, y축, z축의 가속도 성분값은 거의 변하지 않겠군.
- ③ 동작 2가 완료되기까지 고개의 각도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자이로 센서를 통해 측정된 각속도를 매 순간 적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군.
- ④ 동작 3이 x축을 회전축으로 한 것이라면 동작을 완료한 후 가속도 센서를 통해 얻은 y축의 가속도 성분값은 중력 가속도보다 작은 값을 지니고 있겠군.
- ⑤ 동작 3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이로 센서를 통해 얻은 각속도 값이 점차 커지므로 가속도 센서가 없다면 기울어진 각도에 대한 계산값의 오차도 점점 커지겠군.

독서-사회 :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평가원이 ‘특허권’과 ‘영업 비밀’을 토대로 디지털세와 ICT 지식 재산의 보호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면, 이감에서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특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룸.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0 이감 시즌4 2차 2020 간쓸개 특별판 vol.2(경제와 법) 2020 간쓸개 16주차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정 제조 기술이나 특수한 마케팅 전략 등은 기업을 경쟁 우위에 있도록 하는 **영업 비밀**일 수 있다. 법률에서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으면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비밀성이 있으며,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영업 비밀로 간주한다. 절취나 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사용 내지 누설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으며 민사상 손해 배상의 책임도 **①** 진다.

이러한 처벌들 외에 추가적으로, 영업 비밀 보유자는 법원에 영업 비밀의 침해 금지 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취득 경로와 무관하게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하려는 자 혹은 기업을 지목하여 그 행위를 금지토록 하거나 예방하는 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 소송에서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있음이나 침해하려 했음이 입증되면 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 금지 명령을 선고한다. 이때 법원이 침해 금지의 기간을 한정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는데, 그동안 법원은 상황에 따라 한정 여부를 달리하는 판결을 내려 왔다.

<보 기>

기업은 보유한 핵심 기술을 비밀로 관리할지,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관리할지 택해야 한다. 영업 비밀과 달리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갖게 되는,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만이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해당 기술의 사용권을 갖는 배타적 권리이다.

- 기업이 핵심 기술을 (A)하되 (B)을/를 하면 누구든지 허락 없이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한다.
- 경쟁 기업에 의한 핵심 기술의 (C)이 우려되는 경우에 독점적 사용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을 특허권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감TV로 미리 만난 6월 모의평가

잠나는 시간 이감TV를 보는 것만으로도 연계 체감을 확 높인다는 사실!
아직도 이감TV 유튜브 구독 안 하셨어요? 이감러라면 이감TV 구독은 필수입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후니수다

평가원의 출제 의도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었죠!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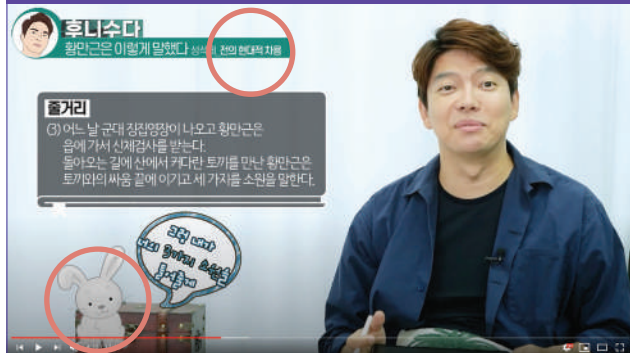
(앞부분 줄거리)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지만, 외지 출신인 민 씨는 달리 생각한다. 어느 날, 밤늦게 집에 가던 황만근은 토끼 고개에서 거대한 토끼를 만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윗글은 **민답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현대** 소설이다. 바보 취급을 받는 황만근이 신이한 존재와 대면했으나 위기를 극복하며 의외의 승리를 거둔다는 비현실적 이야기는 **민답적**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어구 사용, 구성된 입담 등에는 언어의 주술성과 해학성이 잘 드러난다.

이감TV



디지털세 - 이감TV 해설 동영상

특허권과 영업 비밀에 대해 보신 분들은 1문단을 쉽게 읽어 내려가셨을 거예요.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감TV



반계 유형원의 개혁론 - 이감TV 해설 동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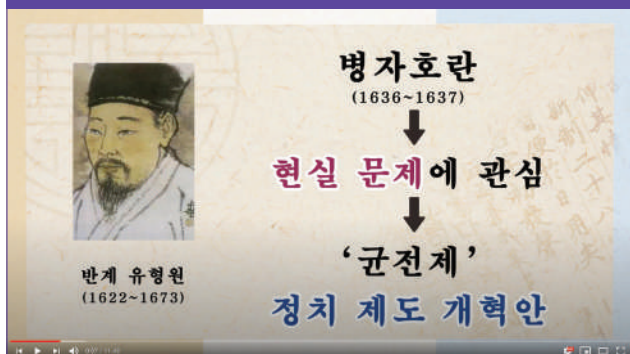
반계 유형원의 정치 제도 개혁안에 대해 보신 분들은 아 그거! 하셨을 거예요.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제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고령무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중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 퇴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이감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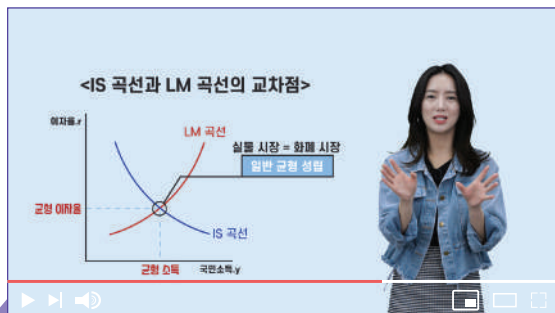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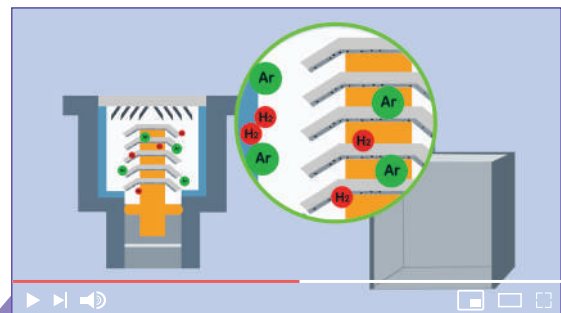
수능 1등급 책임져 줄 **이감TV**



EBS 문학 연계, 후니수다뿐 아니라,
이감TV에는 수능 1등급을 책임져 줄 다양한 영상들이 있어요.
10분 안에 끝내줄게 **‘모의고사 해설’**,
EBS 독서 적중은 여기서 다 될걸 **‘지식동영상’**,
이감이 강추하는 수능 국어 **‘찐공부법’**이 있으니 많이 구독해 주세요~!



[시즌4-5 경제] 2021 EBS 수특 독서 277p 연계
글로만 읽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제 지문! 그래프를 적극 이용해 만들어 봤어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IS-LM 모델**로 알아볼까요?



[시즌4-4 기술] 2021 EBS 수특 독서 178p 연계
기술 지문만 읽으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머리가 욱신거리죠? **크라이오 펌프**를 직접 그려서 작동 방법을 CG로 구현해 봤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즌4-6 예술] 2021 EBS 수특 독서 239p 연계
글을 보고 바로 그림을 떠올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기엔 미술 시간에 너무 집중을 안 했었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 작품과 기법을 함께 준비했어요. **원근법** 확인하러 오세요!



[시즌4-5 융합] 2021 EBS 수특 독서 203p 연계
머리로 떠올리기 어려운 생명과학 융합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인포그래픽과 CG로 처리해 만들어 봤어요.
전자피부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다면 이감TV Go!

V

이감 장학생들의 생생후기



김*락 2020 수능 1등급 & 100점 / 서울대학교 의예과 합격

“정보량이 많은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을 할 때도 이감은 좋은 학습 도구였습니다.”

이감의 모의고사와 간쓸개는 푸는 데 시간이 걸리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지만 19학년도 수능 국어를 떠올리면 절대 과도한 난이도는 아닙니다. 저는 수험 기간 내내 이 두 교재를 병행하면서 실전 감각과 기본 실력을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감 모의고사에서 좋았던 점은 비문학 지문이 깔끔하고 명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글쓴이가 왜 이 주제의 글을 이런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복습하면서 독해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문학은 문제에 제시된 보기를 읽으면서 문학 이론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배경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만의 간쓸개 활용법은 1일 차, 2일 차 등 일별로 제시된 대로 풀지 않고 4~5일로 끊어서 비문학, 문학, 화작문 순으로 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문제를 풀면서 유형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하는지 감을 잡아갔습니다. 비문학은 꼼꼼히 읽으면서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연습을 많이 했고, 화법과 작문은 글의 목적(발표, 토론, 초고 작성)에 따라 물어보는 것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것을 알아채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읽으면서 대략적인 주제나 인물 관계 및 배경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간쓸개에 수록된 이감 비문학은 여러 가지 제재를 다양하게 다루어 주어서 인문, 사회, 과학 등 여러 가지 제재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정보량이 많은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을 할 때도 이감은 좋은 학습 도구였습니다.

이감의 좋은 콘텐츠 덕에, 수능 때 자신감 있게 국어를 풀 수 있었고, 수능 1교시가 끝난 이후 국어를 잘 풀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서 다른 과목도 부담 없이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현 2020 수능 1등급 & 100점 - 가톨릭대 의예과 합격

“수능 시험에서 꿈만 같았던 국어 10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역 때 엄청난 시간 부족으로 수많은 문제를 찍고 시험을 끝냈습니다. 수능 결과에 아쉬움이 많았던 저는 반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국어 학원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강 모의고사와 간쓸개를 풀었습니다.

효율적인 국어 공부를 위해 영역별 공부 방법을 달리하였고, 이때 모의고사와 간쓸개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의 공부 방법은 문학의 연계 지문을 최대한 파악해서, 비문학에 시간을 투자하려 했고, 화작과 문법은 기출과 함께 이강의 문제, 선지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비문학은 이강 콘텐츠 덕분에 '모래주머니'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비문학 지문과 문제를 풀면서, 잘못된 문제 풀이 방식을 조금씩 교정해 나갔습니다. 그 덕에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점점 깔끔하고 빠르게 푸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의고사와 간쓸개를 통해서 현역 때 부족했던 시간 관리와 실전 능력을 채울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는 긴장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수능 시험 보다 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와 더 촉박한 시간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번의 수험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꾸준히 실전 연습을 해서 내 실력에 맞는 점수를 최대한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강 국어 콘텐츠와 함께한 확실한 실전 훈련 덕분인지, 수능 시험에서는 꿈만 같았던 국어 10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민 2020 수능 1등급 & 100점 - 동국대학교 한의예과 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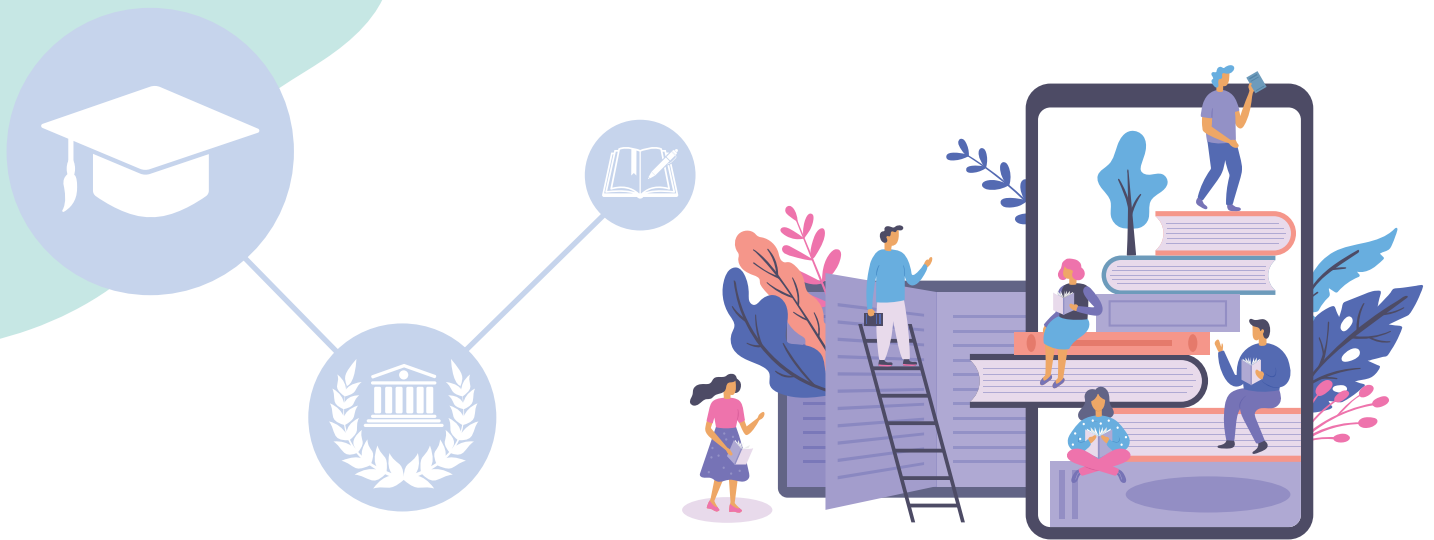
“국어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았고 정말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불수능으로 재수를 한 수험생입니다. 현역 때는 5등급에서 1등급을 넘나들었는데, 낯선 지문에 대한 연습 부족과 변수를 대처하지 못해서 등급이 오락가락했던 걸로 결론을 내리고, 실전 연습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해야 할 공부가 많아서 학습할 때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강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강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80분을 딱 맞춰 풀었습니다. **이강은 다른 사설에 비해 문제 난이도가 적당하고 깔끔하여 문제를 풀고 난 후 분석하는데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문학에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은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 해설지를 통해 꼭 확인했습니다. **평가원 흐름에 잘 맞춰진 모의고사로 꾸준히 연습했던 것이 시험장에서의 변수와 위기를 대처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의고사만큼 간쓸개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간쓸개는 이강 자체 문제를 대부분으로 하고 수특 연계 지문이 골고루 섞여있었기 때문에 낯선 비문학 지문들을 유형별로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낯선 지문을 읽어보고 이 낯섬에 익숙해지면서 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법을 통해 저는 **결국 국어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았고 정말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수능은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자료와 건강한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강이 앞으로도 저와 같은 많은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김*주 2020 수능 1등급 & 98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합격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EBS 연계 체감을 높이는 것과 낮선 지문 대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강 모의고사 및 간쓸개를 활용해왔지만 올해는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공부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문학은 연계 작품 공부와 EBS와 다른 부분이 실린 지문을 이해하는 공부를 해설을 활용하면서 했습니다. 비문학의 경우 답을 보지 않고 풀면서, 내용이 낯선 지문은 또 다른 과목이라 생각하고 공부하듯 읽어 나갔습니다.

매일매일 간쓸개로 하루를 시작하며 스스로의 노력에 뿌듯함을 느낀 것이 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부에는 간쓸개는 평일에, 주말에는 수능 시간에 맞춰 모의고사를 매주 풀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실전 감각이 중요한 걸 알기에 실전처럼 수능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매주 최소 2개 이상의 모의고사를 풀어나가며 실력을 다져갔습니다.

이강을 활용하면서 특별히 좋았던 점은, 1일차~5일차까지 분량이 나뉘어져 있어 매일 꾸준히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의 경우 중간중간 기출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기출에 소홀해지는 수험 생활 후반에도 기출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강을 사용하면서 수능 국어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EBS 연계 체감을 높이는 것과 낯선 지문 대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쓸개와 모의고사는 해설의 지문 분석도 철저하게 되어있어, 연계 공부에 최적화된 콘텐츠입니다. 연계 공부는 멘탈 관리나 시간 싸움에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화 내용과 더불어, 다양한 독서 지문을 통해 수능에서 마주할 낯선 지문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당황하지 않도록 연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강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강과 함께 후회 없는 국어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어 뿌듯하고, 뛰어난 콘텐츠에 감사드립니다.



최상위권이 선택한 국어 프로그램

이감국어1 Final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수능1등급을 완성할
가장 완벽한 국어 프로그램



제3기 이감국어 장학생 선발

모 집 기간: 2020년 6월 29일 ~ 12월 20일

모 집 대상: 2020년도 이감 콘텐츠로 공부한 수험생이면 누구나

신 청 방법: 이감 홈페이지(2sens.co.kr) > PR > 장학생 모집

장학생혜택: ★ 총 장학금 1천만원

이감 테스트 참여 및 멘토 활동 기회

이 감 앱

오 픈

- ☒ 회차별 성적표
- ☒ 오답노트
- ☒ 이감 해설 영상



이감국어
파 이 널
특 징

- 01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독서 제재 및 문학작품 집중학습 가능
- 02 이감만의 적절한 연계 방식을 활용한 EBS 연계 & 비연계 대비
- 03 EBS 수능 완성 집중 분석 및 신경향 문제 다수 출제

season 05 [7/18~9/4]

파이널 I [7주]
모의고사 7회 & 간쓸개 7회
9모 대비 및 EBS수능완성 완벽정리

season 06 [9/5~11/27]

파이널 II [12주]
모의고사 12회 & 간쓸개 12회
수능실전대비

이감파이널 교재를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

www.2sens.co.kr > Partners > 도입학원 찾기
지역별 최고의 학원과 강사진이 한 눈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길 3 3층(양재동, 아산벤처타워)
T 02-567-9507 F 02-567-9509 www.2sens.co.kr